



## Teen STAR 열 번째 만남

# 알성달

### 이성 교제

언젠가 틴스타 수업을 위해 학교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이미 1년 전에 틴스타 수업을 받은 한 여학생(당시 14세)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오더니 “선생님! 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하고 숨차하는 모습에 “정말? 심장이 터져버리면 곤란한데” 하며 함께 심장박동을 확인했던 일이 있었어요.

채팅에서 만난 한 오빠와 사랑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그 이유였지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여학생은 부쩍 성숙해 있었고, 그 사이 이성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겼었나 봅니다.

“엄마와 얘기해봤어?” / “예, 그런데요~ 엄마가 머리에 피도 안  
따른 애가 무슨 남자친구냐고 그랬어요. 엄마는 제 감정을 절대로 시  
해 못 하세요. 엄마한테는 이제 얘기 안 할 거예요!” / “그럼, 내가  
학교에 올 때마다 너의 얘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매주 한 번씩 복도데이트를 시작했고 3주 정도가 지났을 땐 금방  
이라고 터져버릴 것 같았던 여학생의 심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상으로 돌아  
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오빠랑 헤어지기로 했어요.^^”

와우! 한 십대 여학생의 놀랍도록 변화무쌍한 감정이라니.



또 한 번은 한 여학생(당시 17세)이 복도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느라 틴스타 수업에 들  
어오질 못하고 있었어요. 저의 눈치를 살피던 같은 반 친구들은 다툼의 이유에 대해 사뭇 진지함이 묻어나는  
표정으로 “철수(가명)가 영희(가명)랑 다른 남자애들이 친하게 보인다고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철수는 영희가  
다른 남자애랑 말하는 것도 싫대요. 재네 둘은 사랑해서 그래요.” 하고 말하며 저에게 이해를 구하고 있었습니  
다.

빨갳게 달아오른 얼굴로 뒤늦게 수업에 들어오며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는 여학생과 그 모습을 지켜본 같은 반  
친구들을 위해 십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과연 이성 교제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정말 진지한 토론  
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라면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또 감정이 남달라지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  
운 일인데도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부모에게서조차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거나  
무시될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물론 모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번 만남에서는 ‘이성 교제’라는 주제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봐야 하는지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풀어나가기로 해요.

## 사랑하기는 한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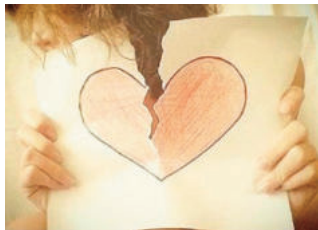


유미는 대학 2학년 여름방학 때 같은 과 남자친구 승준의 생일파티에서 그의 고등학교 동창인 현우를 만났다. 대학에 들어와서 몇 번의 소개팅을 한 경험은 있지만 처음 본 순간부터 ‘Feel’이 오는 남자는 현우가 처음이었다. 그날 파티는 12시가 다 돼서 끝이 났고, 마침 차를 가져온 현우는 집이 같은 방향인 유미를 태워다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순간 유미는 현우도 자신에게 좋은 느낌이 있음을 직감하면서 내심 쾌재를 불렀다. 그를 만난 지 불과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유미는 그날 밤 귀가하는 차안에서 그가 자신의 반쪽일 것만 같은 예감에 사로잡혔다.

며칠 뒤 유미는 친구 승준에게서 현우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냈고, 그날 밤 집까지 태워다 주어 고맙다는 핑계로 그에게 전화를 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은 일주일 만에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었다. 유미는 미리 예매해 둔 영화티켓 두 장을 내밀었고, 현우는 답례로 저녁을 샀다. 그날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예감은 점점 굳어져갔다.

더구나 집으로 가는 길에 하늘이 도우는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차를 가져오지 않은 현우는 점퍼를 벗어 유미에게 입혀 주고는 자신은 비를 맞으며 그녀를 집 앞에까지 바라다주었다. 유미는 다음에 만나자는 약속도 없이 그저 감기 들지 않게 조심하라는 말 한마디만을 던지고 운운이 비에 젖은 채로 돌아가는 현우의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말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현우의 이름을 부르자 그가 뒤돌아보았다. 그녀는 무작정 뛰어가서 그에게 키스했고, 현우는 그녀의 키스를 거부하지 않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시작은 그녀가 했지만, 그 후에는 그가 알아서 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였다. 점차 키스하고 포옹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두 사람에게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소중한했지만, 만난 지 121일째가 되던 날 그들의 사랑은 마침표를 찍고 말았다.

첫 키스하던 날처럼 그날도 비가 내렸고 차안에서 음악을 들으며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던 두 사람은 분위기에 젖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격렬하게 키스를 나누었다. 곧이어 현우의 손길이 어느 날보다 과감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가 되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 유미의 머릿속이 실타래 엉키듯 복잡해져 가는 동안 현우의 손길은 그녀가 감동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더욱 과감해지고 있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와의 소중한 순간을 이런 식으로 차 속에서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유미는 있는 힘을 다해 현우를 떠다밀었고, 웬지 모를 슬픔에 두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난 뒤 현우가 그녀에게 물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냐고.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너 날 원했잖아. 내가 뭘 잘못된 거니?” 유미는 그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는 한 걸까?’ ‘나는 정말 그를 원했을까?’ ‘그가 뭘 잘못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을 얻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가족관계, 정현숙·유계숙 공저에서 발췌〉

## 이성 교제, 남녀의 다른 시각

유미와 현우의 교제는 무엇이 잘못되었던 걸까요? 서로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요?

사랑한다면 친밀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두 사람은 분명히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좋은 감정을 지속시킬 수가 없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 봅니다. '이성 교제는 왜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아마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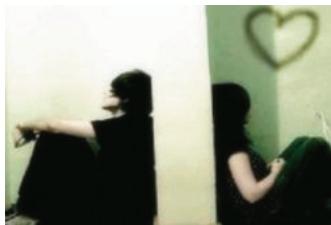
여기에 한 고등학교 1학년 남녀 학생 500여 명의 생각을 모아서 정리해 보았는데,

남학생	여학생
예쁜 사람을 하려고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려고	외로우니까
자신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하고 싶으니까
배우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같이 있고 싶어서
이성에 대해 배워가기 위해	생활의 활력소
가문을 잇기 위해	서로 보살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보고 싶어서
서로에 대한 친밀감 때문에	내꺼 하고 싶어서
서로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놀러가려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기 위해	언어먹으려고
새로운 경험, 남녀 간의 성역할 습득	기념일 챙겨주고 싶어서

여기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생리적, 심리적,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남녀가 만나 교제를 하게 되면 사려에 등장하는 유미와 현우같은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성교육 센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남녀의 차이를 좀 더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성 교제 시 어디까지 신체접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서 손을 잡는대거나 어깨동무를 한다는 것에는 남녀 모두 80~90%가 허용하는 반면, 전체 80% 정도의 청소년이 이성 교제 시 키스의 허용에 대해서는 여성의 경우는 70%, 남성의 경우는 85% 정도로 조금씩 의견이 달라지다가 '몸 만지기'에 대한 생각부터는 급격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는 60%가 허용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25% 정도로 허용하는 비율이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대들의 키스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면 여성은 자신들이 즐겨 보는 로맨스 소설이나 만화에 등장하는 멋진 키스장면을 통해 '나도 한 번쯤 그런 키스를 하고 싶다'라는 환상을 가진다고 해요. 또 남성의 경우는 느낌보다는 키스를 했다는 사실에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남녀 간에는 신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성 심리 면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 올바른 이성 교제 = 이해와 배려



이렇게 다른 남녀가 만나 교제를 하게 된다면 아마도 서로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른 성을 알아가는 일은 몹시 어려운 일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성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이해를 위한 노력의 시간이 빠진 이성 교제는 자칫 자기식대로 판단하고 행동에 옮겨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기가 쉽거든요.

물론 심대에도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모두 상처를 남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지요. 그래도 이성에 대해 관심이 생겨나고, 또는 교제 안에서 좋은 감정이 생겨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심사숙고해보는 일 또한 설렘이나 친밀감을 나누는 것 못지않게 좋은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일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때로는 머리에서 하는 말을 심장이 들으려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만났던 어느 여학생의 경우처럼 자신의 심장은 온라인에서 만난 한 오빠를 당장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으면 터져버릴 거야 하고 외쳐대고 있었지만, 시간을 가지면서 머리에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며 결국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사랑이구나!’ 하고 믿는다면 이런 질문을 서로 던져보면 어떨까요?

- 우리는 서로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찾고 있을까?
- 심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시기에 필요한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서로를 충분히 배려하고 있을까?
- 우리는 서로의 다른 우정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을까?
-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독점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잘 조절하고 있을까?
- 우리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향해 잘 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을까?
- 우리가 이별하게 된다면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해 줄 수 있을까?
- 게다가 우리는 서로를 성적으로 존중해 주고 있을까?
- 우리의 신체적인 욕구와 성적인 표현에 대해 주변 친구의 부추김이 있더라도 우리는 먼저 무엇이 서로를 위해 최선인지 찾으려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나누기 위한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며 서로를 이해해 가는 대신 단지 선물을 주고받는 이벤트를 위해서, 또는 이성과의 교제를 자랑하거나 처한 현실이 힘들어 이성과의 관계로 현실을 외면해 보기 위해서, 또는 성적 욕구의 해소를 위해서 이성 교제를 하게 된다면 이성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배려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남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진정한 이해와 배려가 빠진 사랑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 우리 CUM 친구 여러분은 좀 더 확대된 관계 안에서 이성 친구건 동성 친구건 충분한 우정을 발휘하며 서로를 이해해 주고, 지지해 주며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